

이음, 제주

지역과 문화를 잇다

TRACK.14



스페셜 테마

제주와 사랑에 빠진 젊은 창작자들이 만들어 가는 제주의 현재와 미래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 제주스퀘어 / 일로와 / 왓집+Lab.왓 / 관심사

2019

CONTENTS

발행일 2019년 9월 10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4길 15-6) 발행인 부성현 편집인 이재근
기획·편집·디자인·제작 주드(010-2574-9679) 인쇄 태웅씨엔피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064-727-0617
홈페이지 www.jejuregen.org

2 제주 로컬 크리에이터 그룹

다시, 잇다

5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6 제주스퀘어

8 일로와

10 왓집+Lab.왓

12 관심사

A 그룹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B 주요 생산 콘텐츠 C 주 활동지

JEJU LOCAL CREATOR

濟

州

1 구석카메라

#필름카메라 #카메라 판매 #카메라 수리 #필름 판매

A 제주도 구석에서 필름카메라 사용자들을 돕는 그룹 B 필름카메라 판매 및 수리, 필름카메라 워크숍 운영, 출사모임 주선, 카메라 렌탈서비스(예정), 사진 엽서 제작(예정) C 제주시 삼도이동

유정철 ☎ 010-3882-060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964-2 @camera_gusuk

2 메르치보꾸

#리노베이션 #디자인 #아카이빙 #재생건축

A 도시 통역사 B 공간 디자인, 도시재생건축 C 제주도 전 지역

최윤경 ☎ 010-2105-830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409-15 www.mercibokku.com

3 메이마이헬프유

#디자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A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그룹 B 제주 동쪽의 소상공인 분들에게 디자인 및 마케팅 관련 컨설팅을 비롯해 편집물, 사진, 영상촬영, 편집, 온라인 쇼핑몰 셋팅 등 디자인과 마케팅 관련된 모든 것을 제작 C 제주시 구좌읍

김윤영 ☎ 010-2871-072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7길 16-11 mayihelpyou.modoo.at

4 사단법인 제제프렌즈

#제주동물보호집지 준비 중 #제주도 내 강아지, 고양이, 해양생물 등 제주동물 이야기

A 제주 유기동물을 돕는 커뮤니티 그룹 B 매거진 발행 C 제주도 전 지역

홍난영 ☎ 010-4205-019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115 jejeffriends.com www.facebook.com/jejeffriends @jeje_friends_official

5 말거스

#예술창작 #거리예술

A 다국적 무경계 다원예술팀 B 거리예술, 실험예술, 복합예술 C 제주시 삼도이동

김봄이 ☎ 064-755-841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6길 16 www.salgoce.com

www.facebook.com/Salgoce2017

6 Citrus

#미디어 문화콘텐츠 #제주 예술인 #로컬 이야기

A 제주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내는 문화콘텐츠 아틀리에 B 영상제작, 광고대행 C 제주도 전 지역

장혜리 ☎ 010-2007-650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길 242 www.facebook.com/citrusstudio

7 솔맨유 전자책 독립출판사

#전자책 #제주도 작가 #창작집단 지음

A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자책으로 출간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전자책 독립 출판사 B 전자책 & 오디오북 출간 및 서귀포 대정여고 전자책 강의 및 학생 작품 전자책 출간 C 서귀포시 강정동

박산술 ☎ 010-8428-5400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6 205동 101호 www.facebook.com/psspsshi

8 씨워드 저널

#매거진

A 지역도 영역도 없이 재미와 의미만 있는 신문, 문화인들의 지면 놀이터 B 매거진 발행 및 기획 C 제주도 전 지역

이나연 ☎ 010-3916-816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99(이도일동) 3층 @seaweed_journal

9 쌤크

#프리랜서 #공유오피스

A 사람과 사람, 일과일을 연결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그룹 B 공간케어 C 제주시 삼도이동

박경호 ☎ 010-7935-8686

10 아일랜드

#지역상품 #기념품 #선물 #디자인 #실용 #경험

A 제주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상품 제작 B 이불 속은상콤해 감귤핸드크림 제작, 1950 한라산치약 제작, 이트미 제주한라봉 치약 제작 C 제주시 삼도이동

정제환 ☎ 010-8900-824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4길 21 206호 jejugifts.modoo.at

11 아트세닉

#문화예술커뮤니티 #거리예술프로젝트

A 제주의 커뮤니티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획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워크숍, 포럼, 파티, 등의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 B 거리예술 C 제주시 삼도이동

김봄이 ☎ 064-755-841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6길 16 www.theartscenic.com www.facebook.com/Art-Scenic-1045046462175347

12 어떤생각이든 연구소

#디자인 #기획 #콘텐츠 취재 및 편집(협업)

A Anything, any thoughts. 제주에서 디자인과 끌리는 작은 실험을 하는 콘텐츠 그룹 B 소식지·자료집·리포트 등 아카이빙 편집물 C 제주시 원도심 및 시청 부근

김주미 ☎ 010-8284-407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99 www.facebook.com/anythinkslab

13 에코제주

#Greenery Design #Design Thinking

A Plastic Free Island B 커스터마이징 모듈형 스퀘어 텀블러 제작, 기존 텀블러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제품을 제작 및 특허 출원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룹 C 제주시 노형동

장미화 ☎ 010-9914-587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평안길 12 blog.naver.com/eco-jeju

다시, 듣다

14 지역을 디자인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다시, 보다

16 자포스의 토니 세이와 라스베가스의
다운타운 프로젝트

18 재생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NEWS

20 도시재생과 창업 생태계가 만나다

22 기억의 돌담을 직접 쌓다

23 지역의 미래를 이끌 공공건축가 배출

〈이음, 제주〉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의 콘텐츠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리스트는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직접 등록한 업체들에 한해 작성되었습니다.

예술집단 파수꾼

#재미있는연극 #소규모 음악공연

A 연극이라는 장르를 지켜나가고 있는 예술집단
B 연극 및 공연 **C** 제주도 원도심

👤 조성진 ☎ 010-8914-358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 167(삼도아동)

제주스퀘어

#삼도이동주민통신 #SNS #프로젝트결과보고서
#행사 주최

A 제주의 남는 것과 모자란 것을 연결하는 온라인
소싱, 펀딩 플랫폼 **B** 동네소식지 발행, 행사대행
C 제주도 삼도이동

👤 김나솔 ☎ 064-901-800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 159(삼도이동) 201호 📧 jeju
square.com 📱 www.facebook.com/jeju
square2018

제주착한여행

#공정여행 #마을여행 #체험여행 #공정여행 교육
#제주도여행 #제주워크숍 #공공기관워크숍

A 좋은 마을여행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객, 주
민, 여행지 모두가 행복한 공정여행 **B** 제주 마을
여행 상품 개발 및 진행, 제주도여행 상품 개발
및 진행, 제주도워크숍 코디네이팅 및 진행, 공정
여행가, 마을여행기획가 양성 교육 **C** 제주도 전
지역

👤 허순영 ☎ 064-782-515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복로 762-1(봉개동)1층 📧 www.
jejugoodtravel.com 📱 www.facebook.com/
jejugoodtravel 📧 @jejugoodtravel 📧 blog.
naver.com/jejugoodtravel

제주허니와인

#와이너리 #미더리 #양조장

A 국내 유일의 멜로멜 양조장 **B** 감귤허니와인 양
조 **C** 제주도 애월읍

👤 이창호 ☎ 070-8147-793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옹하길 42 📧 www.jeu
honeywine.com

ZOODE

#지역관리회사 #마을콘텐츠개발 #유류공간콘텐츠개
발 #디자인 #경험디자인 #브랜드디자인 #매거진디자
인 #SNS광고_홍보 #영상디자인 #로컬브랜드리디자인

A 로컬 브랜드를 개발하고 기존 브랜드를 재정립하
여 지역에 부합한 브랜드 개발 그룹 **B** 지역콘텐츠 기
획 개발, 원도심 문화살롱,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영상디자인, 온라인 광고 홍보, SNS 홍보, 여행자 스
테이 '더들집' 운영 **C** 제주도 원도심 및 전 지역

👤 양수정 ☎ 010-2574-9679 📍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시 용문로 11길 28 📧 www.blog.naver.com/durdlezip

제우컴퍼니

#웹툰 #디자인 #강연

B 웹툰 제작(단행본 출간) 및 웹툰 교육 **C** 서귀포시
안덕면

👤 신지우 ☎ 010-2709-6563 📍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안덕면 사계로 3-15

왓집+Lab.왓

#지역아카이빙 #지역네트워크 #지역콘텐츠 #지역
조사 #로컬맵 #로컬북 #제주책모으기

A "우리마을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고치 놀게 마
셈!" **B** 로컬맵(paper what?), 마을 아카이브북(공간
책), 마을 지도,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워크숍, 답사,
초면파티 관련 정보 소개(sns) **C** 제주도 전 지역

👤 문주현, 윤선희, 김정희 ☎ 064-755-005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2길 34 1층 104
호 왓집 📱 www.facebook.com/culturalwhat
📧 @spacewhat_jeju 📧 cafe.naver.com/spacewhat

원시티 콘텐츠 플랫폼

#원도심 문화, 스포츠, 관광, 콘텐츠 개발 #주민 극
단 창단 #칠성로 문화예술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아간도심투어 개발

A 혼자 와서 함께 일하는 창작자, 프로듀서의 커뮤니티
운영 및 원도심 마을 문화 만들기 상상 **B** 문화
예술, 콘텐츠, 프리프러덕션, 창작자, 프로듀서, 주민
극단, 아카데미 **C** 제주시 일도일동(원도심, 칠성로,
탐동)

👤 김진희 ☎ 010-9260-4877 📍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시 칠성로길 8

액티브인제주(두모아협동조합)

#아웃도어 액티비티 #건강 #자연 #연수 #단체 프
로그램

A Find Your Balance **B** 아웃도어 액티비티, 프리
다이빙, 트레일러닝, 숲밧줄놀이 등 **C** 서귀포시
남원읍

👤 오기석 ☎ 064-763-8369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동아로 85 노인회관 2층
📧 www.activeinjeju.com

두식회사 일로와

#SNS #문화기획 #콘텐츠 기획·디자인 #영상

A 당신의 마케팅팀 토탈마케팅 일로와 **B** 광고대
행(SNS콘텐츠), 행사대행(기획, 현장설치, 운영 등)
C 제주시 일대

👤 이금재 ☎ 010-3599-48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4길 6(이도일동) 2층 플레
이스일로와 📱 www.facebook.com/iilowajeju
📧 @iilowajeju 📧 blog.naver.com/iilowajeju
📧 www.youtube.com/channel/UC1jOL92
PCvHUa5LB9INRaQw

퍼스트제주

#시각디자인 #편집디자인 #사인디자인

A 제주도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회사 **B** CI·BI개발, 로고 제작, 브랜딩, 종
이로 하는 모든 작업, 간판 및 안내판, 현수막, 실
사출력, 시트커팅 작업, 행사 기획 및 대행, 지도
제작, 브랜드 아이덴티티 관련 홍보물 및 디자인
C 제주도 전 지역

👤 한성준 ☎ 010-7933-3616 📍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시 칠성로길 8 3F 디자인공장 📧 @jejudesign_
first 📧 @ed_han.s

(주)푸른바이크웨어링

#착한여행 #자전거여행 #에코여행 #제주여행 #월
링여행

A 아날로그의 힘, 착한 자전거 여행 **B** 제주의 자
연과 함께하는 자전거 여행 **C** 제주시 삼도이동

👤 김형찬 ☎ 064-721-033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4길 7 📧 www.purunbike.com
📧 @purunbike

다시,

지역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다

제주와 사랑에 빠진 젊은 창작자들이 만들어 가는 제주의 현재와 미래

지역의 콘텐츠를 새로운 가치로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이다. 이들의 영역은 식음료, 숙박, 카페 등 전통적인 골목 산업을 비롯해 디자인, 미디어, 소셜벤처, 문화기획, 도시재생 스타트업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는 미래 주역인 밀레니얼의 소비 트렌드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친편일률적인 대형 마트, 쇼핑몰, 백화점 등의 구성과 상품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개성 없는 동네와 골목, 뻥한 거리 역시 관심을 끌지 못한다.

이들은 지역성과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에 열광하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사랑한다. 이런 현상을 바탕으로 서울을 비롯해 제주, 부산, 속초 등 지역의 색으로 중무장한 창조적인 청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이번 이음제주에서는 이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사회·문화적 선순환을 만들고 있는 제주와 타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 그룹을 소개한다.

1930년대 폐목조 건물을 개보수해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살림'

제주에 버려지고 소외된 것을 찾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제주폐가말리기 사회협동조합.
재생의 가치는 순환에 있다고 말하는 김영민 대표는
버려진 자원을 모아 아카데미하고 사람들과 공유함으로 지역과 마을이
활성화되고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제주에 새로운 생명이 많이 태어나길 기대해본다.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XXXI ★ IXXX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곳인가요? 제주에 버려진 것, 방치된 것, 소외된 것을 찾고 그것들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자원들을 아카이빙(조사, 기록, 공유)해 내고 그것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폐가와 빈 공간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적 자원을 매칭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육지의 시골에도 많은 폐가가 있는데 제주도를 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주가 좋아 틈만 나면 제주 구석구석을 여행하던 중 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 폐가가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해 2012년도에 조사를 시작했고 약 80개 마을을 직접 돌아 보고 찾아본 결과, 제주 전역에 마을당 최소 10가구 이상 폐가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제주폐가살리기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5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폐가살리기를 통해 소외된 농촌 지역의 활성화 및 마을 살리기의 취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울림이 있는 장소로 제주도가 가장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제주라면 폐가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여 쓰고 싶어 하지 않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폐가 선정의 기준이 있나요? 폐가라는 공간 자원은 입지(위치), 상태, 소유주의 3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저희가 추구하는 제의 가치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보니, 소유주의 생각과 의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폐가 혹은 빈집을 개조할 때 중점을 두는 것이 있나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정 과정을 진행합니다. 하나의 공정이 하루면 끝나는데 저희는 한 공정이 끝나면 일주일 정도 쉬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래된 집들은 상량문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물찾기하듯 천천히 찾아야 합니다. 저희가 살았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월의 흔적을 살리기 위해 공정 공정마다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폐가의 모습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초창기에는 대부분 주거 공간으로 진행하였는데 작년부터 상업적인 공간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가옥의 경우 주거 공간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아서 뜻이 맞는 조합 또는 그룹들과 함께 코워킹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공사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시간을 두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대화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통 15일에서 한 달이면 끝나는 일을 저희는 석 달이 걸립니다.

기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어떤? 지난 8월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리노베이션한 한라마을작은도서관입니다. 노후화된 한라마을작은도서관을 3층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노베이션 했으며, 지역의 유휴자원을 재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재생의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역 재생을 한다고 다들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옛날부터 재생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자원이 부족해 고쳐서 사용했고 현대에 와서는 자원이 남아돌아 재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재생의 가치는 순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위치한 동네, 동네가 위치한 지역을 사랑할 때 지역 문화가 형성되고 순환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시작점인 공간을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 여부에 따라 진정한 재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향하는 가치 또는 목표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는 누군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집중은 생각과 고민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원을 모아 아카이빙하고 사람들과 공유함으로 지역과 마을이 활성화되고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주스퀘어는 어떤 곳인가요? 제주스퀘어는 '제주의 남는 것과 모자란 것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제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하는 분들과 제주의 다양한 자원들이 원활하게 연결되는 모습을 지향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온라인에서 모임을 개설할 수 있는 '소셜밋업 플랫폼 제주스퀘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람과 자원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봉성리하우스씨어터'와 '스윗스윗 피쉬앤루프스'가 있습니다. 봉성리하우스씨어터는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구옥과 연극 공동체 '다움'을 연결한 프로젝트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구옥을 정비하고, 다움은 그곳에서 살며 연극을 만들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스윗스윗 피쉬앤루프스'는 제주로 돌아오고 싶은 제주출신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 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싶어하는 작가들을 제주의 비수기 숙소와 한 달간 연결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삼도2동 인근의 소소한 소식을 공유하는 동네소식지 '삼도2동 주민통신'을 청년들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삼도2동 주민통신'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가까운 곳의 소식이지만 서로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자주 다니는 카페나 식당을 통해서 알게 되거나, 친한 사람들끼리 톡으로 소식을 듣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동네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경로가 SNS 정도예요. SNS를 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소식을 접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SNS를 하지 않는 분들, 동네 소식이 궁금하지만 친한 사람이 별로 없는 분들도 동네 소식을 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어요. 결론은 동네소식지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비치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삼도2동 특징이 1층에 작은 가게가 많다는 것인데, 일상에서 자주 가는 곳을 통해서 동네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동네소식지 제작, 유통, 배포하는 역할을 동네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지 선정에 있어 원도심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원도심은 많은 가능성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쇠퇴해보이는 이미지가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매력적인 가게를 새로이 열어서 시도하는 청년 분들도 있고, 오래되고 푸근한 가게들도 있습니다. 문화에 관한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제주시내에서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재발견할 수 있는 매력이 곳곳에 숨어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시도의 장이 될 수 있

는 공간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

면? 2018년 9월에 삼도2동 동네밥집 탐방 밋업을 했습니다. 미리 신청한 분들에게 동네밥집을 알려주고, 그곳에 오면 밥을 쓰는 밋업(meetup, 모임)이었죠. 5일 동안 삼도2동에 있는 동네 밥집에서 모여서 밥 먹고, 대화하고, 밥집에 대한 진솔한 평가, 각자 사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열 번에 걸쳐서 밥집에 모여 같이 밥을 먹으며 얘기하고, 밋업이 끝난 후에는 사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뭐랄까, 동네가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소비자로서 동네를 다녔다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동네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밋업에 온 분들은 우리 회사의 손님이자, 우리 동네에 오신 손님, 마치 우리 회사가 호스트가 되어서 동네밥집을 잠시 빌려 동네로 손님들을 초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네에서의 나, 우리 회사의 포지션을 손님에서 주인으로 전환하게 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젊은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소통,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가깝게 협업하는 회사나 단체하고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페가살리기사



스윗스윗 피쉬앤루프스 프로젝트 오프닝 파티



봉성리하우스씨어터에서 공연하는 다음의 모습

**지역 커뮤니티는 최근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돼
나타나고 있다.
사람과 공간, 문화가 공존하며
소통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제주스퀘어는 제주의
남는 것과 모자란 것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주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연결, 소통하고 있다.
매번 신선하고 재미있는
주제를 통해 제주를 연결하고
있는 제주스퀘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룹이다.**



화적협동조합, (주)메르치보꾸, 씨위드, 어떤 생각이든연구소 등 하고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하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 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는 같이 협업해서 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회사들과고는 서로의 프로젝트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거나 요청하며 교류합니다. 요즘 생각하는 것은, 서로의 존재와 활동을 대략 알지만 가까이 교류하지는 못하고 있는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들 하고 더 소통하고 연대할 방법을 찾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역의 힘은 나와 가까운 곳이라는 점, 내가 매일 다니고 매일 접하는 곳이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힘은, 그 지역에서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기 때문에 힘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삼도2동 주민통신을 배포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모텔의 사장님이셨는데, “동네 신문이 있었군요! 제주지역신문보다 동네 소식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제주스퀘어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가 들고 싶습니다. 제주스퀘어가 지향하는 가치는 ‘제주도에서 시도하는 사람들의 성장’입니다. 어떤 것을 시도하든, 시도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그 시도에 필요한 도움(자원)을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그들의 성장을 통해서 제주에 사는 분들, 제주를 방문하는 분들의 경험이 더욱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스퀘어가 목표 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시도하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에 필요한 자원, 지역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자원이 그 사람들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현재 소셜믹업 플랫폼 제주스퀘어의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서비스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에서 각자의 분야,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분들을 찾고 조망하는 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이상을 가지고, 어떤 시도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우선은 상세히 파악하는 일을 할 계획입니다.

👤 김나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 159 (삼도이동) 201호
☎ 064-901-8003
🌐 <http://jejusquare.com>
🌐 <http://jejusquare.kr>
📘 www.facebook.com/jejusquare2018/
📧 brunch.co.kr/@nassol/30



야간플리마켓 '야문떡탈장'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



일로와는 어떤 곳인가요? 일로와는 평균 나이 29세의 밀레니얼 세대인 제주 청년들이 모여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그룹입니다. 최근에는 1인 프리랜서,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클라이언트와 연결해 주는 토털 마케팅 사업을 주사업모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2012년 즈음 이대로 계속 창업을 해도 괜찮을까? 고민하던 중, 제주로 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고 그들에게 제주를 알릴 수 있는 제주여행책 중국어버전을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때 제주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찍었던 사진들이 지금의 일로와를 있게 하였습니다.



**일로와는 평균 나이 29세 청년들로 구성된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룹이다.
이들은 제주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고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대표적인 제주의 청년 그룹이다.
제주가 좋아서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운 일로와 크루들!
앞으로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질지
이들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콘텐츠 힘은 물론 주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한 통합 마케팅채널로 성장하고자 토탈 마케팅을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갈팡질팡,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사업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단연코 야몬딱탈장이 아닐까 합니다. 일로와의 SNS의 파워를 오프라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리고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야간플리마켓 야몬딱탈장은 누구나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제주도민 그리고 관광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제주어 사전이란 콘텐츠입니다. 한 육지 기업이 제주도로 워크숍을 왔을 때 저희 콘텐츠를 썼을 정도라고 해요. 60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도달했으며, 2012년에 올린 콘텐츠에 아직도 좋아요를 가끔씩 눌러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만난 사람 혹은 그룹 중 주목할 만한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제주도에는 지역의 특성상 소문이 쉽게 나서 알려진 인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숨은 고수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우리 일로와 콘텐츠 팀장 유가은입니다. 회계학과 출신이지만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에펙 등 콘텐츠 제작 능력은 물론 클라이언트, 파트너사를 대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옆에서 보면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아직은 대외적인 활동이 없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

지만 가은 팀장이 조만간 로컬씬에 등장한다면 엄청난 내공을 바탕으로 한 활동들이 기대됩니다!

지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점심시간에 주로 합니다. 이곳에서 활동한 지 5년이 지나가니 음식점, 카페에 들러 식사 혹은 음료를 마시니 자연스럽게 사장님들과 친분이 생겨 인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곤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일로와라는 자체 SNS 채널이 있으니 한 번 올려드리면 너무 좋아하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무엇보다도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로와가 청년들이 모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건 청년들의 생동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 및 꿈꾸고 있는 일로와의 모습을 말해주세요. 함께하면 즐거운 일로와 제주! 늘 페이스북 마지막 글귀에 적었던 문구입니다. 일로와 크루들의 월급과 복지를 위해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주변 친구, 동료들과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늘 꿈꿉니다.

입지 선정에 있어 원도심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마침 입주했던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원도심으로 이전하면서 원도심 라이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보육 기간이 종료되어 사무실을 알아볼 때 원도심에 비어있는 건물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임대료도 천정부지로 올라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곳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자연입니다. 며칠 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겪을 때 하늘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며 그 순간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365일 제주를 여행하며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조금만 시내를 벗어나면 자연이 나를 반겨줄 때 그때만큼은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금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양로14길 6 2층
010.3599.4838
www.facebook.com/ilowajeju
@ilowajeju

제주와 여행자를 연결하는
문화 실험 공간
왓집+Lab.왓



왓집+Lab.왓에는 그 동안 진행한 로컬맵, 공간책 등이 진열되어 있다.



왓집+Lab.왓에서 진행한 제주 로컬맵

왓집+Lab.왓은 어떤 곳인가요? 왓집(Spacewhat?)은 유달(문주현), 멘도롱(윤선희), 강(김정희), 이 세명이 '재미있고 즐겁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배부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문화 실험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칠성로에서 제주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카페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와 공연, 네트워크 파티 '초면파티', 아트마켓 '뽕글영 폴장'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Lab.왓(Lab. what?)이라는 지역 아카이브 그룹을 만들어 제주도 내 마을을 조사하고, 마을마다 공간책과 지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2017년에 칠성로 왓집 시즌1을 끝내고 관덕정 인근으로 옮겨 지역 아카이브를 위한 공간 "왓집+Lab.왓"으로 시즌2를 시작하면서, 꾸준히 해오던 로컬맵과 공간책 제작은 물론, 아카이브 전시디자인, 제주책장, 동네 매력찾기 투어 등, 사람들과 함께 지역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모으고 나누는 '아카이브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주에서 태어나 쪽 살고 있지만 저희도 지역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제주의 많은 젊은이들과 이주하신 분들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 그리고 새로이 발견되는 매력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재밌고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에 있어 원도심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주도 전역을 돌며 공간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 저희가 처음 왓집을 열었던 칠성로의 옛 뼈빠라기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은 저희에게도 추억이 있는 장소였는데, 5년간 왓집 시즌1을 하며 멋진 추억들을 더 많이 얻었습니다. 왓집 시즌2를 시작할 때에도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원도심 안에서 공간을 찾았습니다.

원도심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마을의 매력을 찾는 일은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에

서도 늘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도 수많은 매력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지역의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를 모으고 모아도 늘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옛날부터 요즘까지 그 폭도 넓습니다. 또 사람들을 통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시간이 쌓여 가치를 갖는 건물이나 길도 많다 보니, 남아있는 건 남아있는 것 대로, 변화하거나 사라지는 건 또 그 나름대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매력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느끼길 바라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역사와 이야기, 사람과 공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모으고 수집해 아카이빙하는 문화 실험 공간, 왓집+Lab.왓. 제주의 잊혀진 이야기를 찾고 현존하는 이야기를 수집해 할자로 정리될 때 의미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왓집+Lab.왓의 다양한 활동은 제주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이들의 실험 정신을 통해 더 많은 제주다운 콘텐츠가 사람들과 만나길 바란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작년에 했던 '동네 매력찾기 프로젝트'입니다. 기획자, 아티스트들이 직접 자신이 사는 마을 혹은 좋아하는 장소를 골라 참여자들에게 소개하고, 참여자는 기억에 남는 공간을 그려 자신만의 동네 지도를 하나씩 갖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같은 길을 걸었는데도 각자 느낀 매력이나 표현방식이 다 달라서 다양한 지도가 나오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시즌2로 또 다른 지역, 다양한 사람들과 동네의 매력을 찾아 떠날 생각입니다.

젊은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도 벌써 활동한지 적은 7년, 길게는 12년이 되었네요! 그렇다보니 비슷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건너건너 소개로 만나거나, 커뮤니티 파티에 놀러 오거나, 일부러 찾아와주셔서 알게 되는 등 다

양한 경로로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결이 맞는 친구들은 프로젝트를 함께하거나, 재미있는 기획을 구리하기도 하고, 왓집에서 뜬금없이 열리는 모임을 함께 즐기기도 합니다.

지역민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나요? 워크숍이나 네트워크 파티처럼 특별한 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기왕이면 일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업실 안이 궁금해 들여다보는 동네분이나, 그늘에 앉아있는 어르신, 소소한 이야기를 하러 들른 친구나 아티스트들까지 모두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이나 환경, 모습 등이 다 다르기에 그곳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모두 그곳만의 특별함을 갖습니다. 그 특별함을 기반으로 콘텐츠들을 만들어갈 때 그 곳에 꼭 맞는 '맞춤 콘텐츠'가 되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왓집+Lab.왓이 지향하는 가치 또는 목표를 말해주세요. 서로의 개인적 활동에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오래도록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재미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지역의 이야기와 개성이 담긴 새로운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지역의 가치와 매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심사는 어떤 곳인가요? 관심사는 각자 좋아하는 것을 채워 넣고 사람들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소품샵과 카페, 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기획에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공간이라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계속 실험해보고 작당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관심사 안에는 다양한 공간이 공존하는데 공간을 구성할 때 중점을 둔 부분이 있나요? 이름이 관심사이니 각자 관심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넣기로 초반부

터 기획했습니다. 음악을 하는 친구를 위한 음악 감상실,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영화모임을 할 수 있는 빔 시설, 문구 제품을 좋아하는 친구를 위한 문구 편집숍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사에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입구에만 머물지 않도록 매장 중심에 가장 눈에 띄는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주를 아이템으로 한 콘텐츠는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

란 도민 그리고 청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관심사를 통해 찾아갈 계획입니다.

입지 선정에 있어 원도심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원도심은 신기한 공간입니다. 낮에는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붐비는데 밤에는 폐허가 된 동네처럼 한산해집니다. 그리고 이용 연령대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원도심은 우리 관심사가 꼭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

다양한 공간이 공존하는 관심사 내부 모습





한정훈, 서지용, 김동연 세 명의 대표

음악, 영화, 문구를 좋아하는 세 명의 대표가 자신들의 관심사로 공간을 구성한 관심사.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통의 관심사인 문화기획도 하반기 프로젝트로 준비 중이다.
매달 두 팀의 뮤지션을 선정해 그들의 노래 작업 과정을 전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월간아티스트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의 숨겨진
뮤지션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각합니다. 좋은 기회에 원도심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아직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움직임이 원도심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옛 기억이 담겨있다는 것만으로도 원도심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에 익숙한 저희에게는 원도심의 흔적들은 보물 같은 거예요.

관심사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있나요? 이제 막 시작할 관심사 하반기 프로젝트인데요, 월간아티스트프로젝트(줄여서 월아트)입니다. 매달 두 팀의 뮤지션을 선정해 그들의 노래 작업 과정을 전시하고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전시 기간 중 한 달은 공연을 진행합니다. 제주에 다양한 공연이 많이 생겼지만, 그 공연은 유명한 뮤지션의 주 무대지 인디 뮤지션의 무대는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좁고요, 시청에 위치한 <낮과 밤>이라는 공간이 뮤지션과 뮤지션의 연결고리라면 저희는 뮤지션과 일반 손님을 연결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게 진행하려 합니다. 또 하나는 문구 편집숍입니다. 제주에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작가의 굿즈를 비롯해 오프라인 매장 자체가 없는 작가들의 다양한 굿즈들이 관심사에 입점했습니다. 작가들의 굿즈 입점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 주시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제주도민을 비롯해 여행객들의 발길도 꾸준히 늘고 있어 흐뭇합니다. 최근 문구 맛집으로 관심사를 SNS에 올려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심사를 운영하기 전에 대외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함께 운영하는 친구들도 대외활동에서 만난 사이예요. 대외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끼리 연결되어서 저희만의 인맥을 키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나요? 대외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제주 청년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감대,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니 네트워킹도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관심사를 기점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시너지를 만들면 좋겠어요. 간단한 수리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주변 상가에 전기가 나갔거나 커튼을 새로 달아야 하는 소소한 일들

을 무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할 때 차량이 막히거나 소음이 있어도 많이 이해해주셨어요. 이번에 공사를 할 때는 수고한다고 박카스도 챙겨주셨어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로컬의 정서가 반영된다는 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콘텐츠는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이곳의 로컬 콘텐츠는 여기 있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컬 콘텐츠의 요소를 잊지 않고 잘 가져가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사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나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관심사를 공유하고 또 다른 관심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미래로는 '월아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제주 뮤지션과 관객들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정훈, 서지용, 김동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77
 064-724-3296
 @interests_jeu

다시,

지역을 디자인하는 LOCAL CREATOR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음제주 14



사진출처 : 다시부산 인스타그램 @dasi_busan_official, 칠성조선소 @chilsungbooyard, 무등산 브루어리 인스타그램 @mdebrewing

창조도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 즉, 지역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다.
자신의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소개한다.

사적인 부산을 만나다 다시부산

부산은 유명 관광 도시로 많은 매체에 소개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콘텐츠는 맛집과 관광지만을 다룬다. '다시부산'은 진짜 부산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창간된 로컬 매거진이다.

다시부산은 원고, 디자인, 삽화, 리워드 등 재능기부로 이루어진다. 전문 필진이 아닌 부산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두의 이야기를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는 진솔한 부산을 담겠다는 매체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잘 쓴 글보다 진솔한 이야기를 선호한다. 자신의 추억이 담긴 부산에 관한 이야기라면 누구든 우리의 필진이 될 수 있다. 다른 잡지보다 ऐसे 비중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다.

다시부산은 부산을 소개하는 매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의 장도 마련하고 있다. 교수, 공무원, 대학생, 스타트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필진으로 참여하며 서로 연결된다. 부산푸드필름페스타, 대한민국온천대축제와의 협업은 필진을 통해 성사된 된 경우다. 이처럼 지역과 상생하는 매체이자 지역 콘텐츠 그룹으로 성장할 이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다시부산
www.dasibusan.com
@dasibusan_official
dasibusan@gmail.com

광주를 담은 맥주 무등산 브루어리

광주를 대표하는 맥주가 있다. 광주의 명소인 무등산을 상호로 사용해 브랜딩한 무등산 브루어리다. 판매하는 상품명 역시 '무등산 펄스너', '광산 바이젠', '영산강 둔켈' 등 광주 지명을 활용해 지었다.

또한, 광주의 농산물을 활용해 제품 개발도 하고 있다. 무등산 수박은 광주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특산물로 크고 당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미 외국에서는 수박을 넣어 맥주를 주조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무등산 수박을 활용해 IPA 맥주를 기획, 생산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수제 맥주를 만들 경우 자연스럽게 지역의 맛과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진다. 무등산 브루어리는 이 점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공간, 로고, 상품 디자인을 통해 다채로운 매력과 즐기는 재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로컬 브랜드의 고유성을 콘텐츠로 발전 시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지역의 문화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무등산 브루어리
광주 동구 동명로14번길 29-4
15:00 ~ 24:00
062-225-1963

배와 예술의 만남 칠성조선소

속초에 위치한 칠성조선소는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목선을 만들던 할아버지, 그 뒤를 이어 아버지가 조선소를 운영했으며, 지금은 3대 손자인 최윤성 작가가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아내인 백은정 작가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와 카누, 카약, 우든 보드 등 소형 레저 선박을 개발 및 제작, 판매하는 '와이크래프트보트'라는 공장을 세웠다. 하지만 잘 팔리지 않아 공장 운영이 힘들어졌다. 부모님은 건물을 허물고 싶어 했지만 어린 시절 추억이 남아있는 공간을 최윤성 작가는 살리고 싶었다.

올 1월 조선소 마당 한 칸 가족이 살던 옛집을 수리해 살롱으로 오픈했다. 조선소는 전시장으로, 마당에는 카누와 카약 공방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난 5월, 뮤직 페스티벌도 진행했다. 과거 락밴드를 했던 최윤성 작가의 음악 동료들과 만든 음악 파티였다. 민요록밴드 씽씽, 강산에, 새소년 등 멋진 가수들의 무대로 1박 2일의 축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올 가을에는 칠성조선소와 어울리는 컨셉의 작은 영화제도 계획 중에 있다. 속초에 남은 두 곳 중 하나인 칠성조선소, 공간의 목적은 달라졌지만, 장소의 역사성과 가치를 새로운 문화로 재창조하고 있다.

칠성조선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46번길 45
11:00~20:00 (수요일 휴무)
033-633-2309

다시,

토니 세이는 왜 버려진 도시를 샀을까?

자포스의 토니 세이와 라스베이거스의 다운타운 프로젝트

자포스의 CEO 토니 세이는 2011년 라스베이거스에서 특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바로 다운타운 프로젝트다. 쇠락해가는 라스베이거스 구도심을 새롭게 디자인한 이 프로젝트의 배경과 진행 과정, 성과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자.

참고자료 <https://arkonet.tistory.com/137>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사진출처 Downtown Project 인스타그램, 위키피디아



토니 셰이, 라스베이거스의 구도심을 사다

토니 셰이는 미국 최대의 온라인 신발쇼핑몰 자포스(Zappos)의 창업자다. 자포스는 아마존에 12억 달러, 우리 나라 돈으로 1조 3500억 원에 팔리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다. 점점 커지는 회사의 규모에 맞는 새 사옥이 필요해졌다. 그는 미국의 유명 기업 본사들을 둘러 보았다.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캠퍼스와 같은 멋진 건물과 시설들은 그가 생각하는 사옥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사로 잡은 것은 맨해튼 거리의 카페와 갤러리가 어우러져 있는 뉴욕대학(NYU)의 캠퍼스였다.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 대학의 캠퍼스에서 영감을 얻은 토니 셰이는 자포스의 미래를 상상했다. 여기에서 더 발전해 그는 도시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일터로 만들고 싶어졌다.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가 '다운타운 프로젝트'다. 그가 나고 자란 라스베이거스의 다운타운에 다운타운 프로젝트를 창입하고 구도심 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

다운타운 프로젝트의 원래 목적은 자포스 사옥 이전이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지역 혁신과 커뮤니티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아이디어가 덧붙여지면서 사업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지역과 기업이 함께 혁신하고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고 실행한 기업 주도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첫 사례가 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권 뿐 아니라 도시 전체 인프라의 혁신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운타운 프로젝트는 이곳에 보험 없이 월 80달러만 내면 무제한 진료와 상담, 건강관리법을 배울 수 있는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보험 없이도 감기만 걸려도 100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미국에서는 굉장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과 다운타운 프로젝트

다운타운 프로젝트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체인을 찾아 볼 수 없다. 스몰 비즈니스 형태의 가게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작은 공간 하더라도 찾아오는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고 가게만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한다는 다운타운 프로젝트의 사업 지원 기준 때문이다. 또한, 라스베이거스 테크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 단순히 스타트업에 지원금과 공간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교류할 수 있도록 매거진을 발간하거나 강연회를 열고 있다. 또한 오래된 호텔을 인수해 코워킹 스페이스이자 스타트업이 정보를 교류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카페로도 운영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관련 스타트업 프로젝트100,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한 나인브리지 등 도시의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수많은 스타트업이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운타운 프로젝트의 미션은 도시 혁신을 '돕는다'이며 여러 기사에서도 시종일관 '도시 성장을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성장 가능성 있는 사람을 돕고 가능성이 보이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변화와 발전을 기대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과 지원이 있어도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 없다면 결국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 할 것이다. 다운타운 프로젝트는 토니 셰이의 혁신 정신과 도시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정부와 민간 기업의 도시재생 사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아지고 있다. 복잡한 우리 사회와 한 가지 변화에도 다양한 단체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현실에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은 이해관계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닐까. 토니 셰이가 자신이 직접 나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람을 돕고 있는 것처럼 정부와 민간, 주민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것이다.





재생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 디자인프레스의 협업으로 제주 디자인공장에서 열린
'로컬 라이브 인 제주(Local Live in Jeju)'. 많은 제주도민과 제주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 학생들이 참여한 현장을 소개한다.

*해당 기사는 네이버 디자인프레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X디자인프레스-우리 둘, 재생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기사를 인용해 작성하였습니다.

디자이너의 사회 활동 중에서 눈에 띄는 분야는 디자인의 뿌리를 '지역'에서 찾는 로컬 디자인(Local Design)이다. 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디자인의 역할은 문제 해결이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디자인 방법론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더 가깝다. 지난 7월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 디자인프레스의 협업으로 진행된 토크 프로그램 '로컬 라이프 인 제주(Local Live in Jeju)'는 지역 문제를 디자인으로 소통하고 있는 로컬 디자인 사례를 소개하고 제주도 로컬 디자인과 디자이너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공간

아무도 관심 없던 서울 창신동 안으로 들어가다

2012년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 '공공공간'의 시작은 신윤에 대표가 서울 창신동으로 미술 교육 활동을 나가면서다. 서울 창신동은 봉제공장이 모여 있는 동네로, 대부분의 지역 주민이 봉제 공장에 종사하고 있다. 우연한 기회로 창신동 지역에 깊게 들어가게 된 신윤에 대표에게 그곳 문제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은 저녁이면 한 보따리씩 쏟아지는 원단 자투리 쓰레기였다. 그녀는 창신동 주민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원단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로 쿠션이다. 봉제공장에서 버리는 원단을 잘게 잘라 폴리우레탄 소재 커버에 넣은 쿠션 겸 방석이다. 두 번째는 제로 셔츠다. 원단 자투리가 나오지 않게 패턴을 디자인하여 최소한의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옷이다. 세 번째는 봉제공장의 간판을 만들어 주는 프로젝트 '거리의 새로운 이름들'이다. 산업 구조상 창신동 봉제공장은 간판이 없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79곳에 간판이 세워졌다.

신윤에 대표는 공공공간을 운영하면서 지역 문제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한다. 불안정한 일자리는 창신동 주민의 업무 환경과 연결되며, 이는 교육과 육아, 삶의 질의 문제로 연결된다. 때문에 그녀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디자인 프로젝트가 아닌,

사람들의 소비 패턴과 생산 패턴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소상공인과 공존하는 생산 라인과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롱 라이프 디자인(Long Life Design)'을 원칙으로 삼아 자체 디자인 외에도 기업, 기관과 지역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이즘

지역주민과 협업의 놀라운 결과

공공디자인이즘의 허진옥 대표는 10년 넘게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작업이 돈으로만 환산되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꼈다. 그래서 잠시 다른 경험을 쌓을 겸,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공공디자인이즘은 대부분 디자인 회사가 서울에 모여 있는 것과 달리 충청북도 청주에 있다. 덕분에 상대적으로 디자인 혜택을 못 받는 지방 도시에 그 의미와 철학이 뚜렷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상가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지방의 마을 기업의 로고와 브랜딩 작업을 하기도 한다. 현수막이나 조립식 가구를 직접 디자인, 판매한다. 가구의 소재로 종이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을 생각한 것으로 차후 재활용이 쉽기 때문이다. 허진옥 대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정부 지원이나 지역 단체에서 주도한 공공 디자인 사업은 유지 기간이 1년 6개월~2년 정도다. 아쉽게도 시작했지만, 2년 뒤에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과거로 '원복'한다는 이야기다.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디자인이 그 자체로 문제를 가진다는 건 아이러니한 일이다.

허진옥 대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이 한계를 극복했다. 예를 들어 청주시 한복문화의 거리 간판을 디자인할 때는 가게 주인이 간판 디자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통해 극복한 공공디자인이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주민-디자이너-전문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지역 문제가 해결되는 진정한 로컬 디자인이 탄생한다고 본 것이다. 공공디자인이즘은 행사, 설문조사, 디자인 교육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실험 중에 있다.

디자인공장

제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공장은 제주도에 상주하는 디자이너 혹은 창업이나 취직을 준비하는 제주도민을 위한 공간이다. 목적은 단순한 유희 공간 제공이나 창업 지원이 아니다. 그보다는 입주 멤버들이 모여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활동이 도시재생과 연결되어 차후 이에 기여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테면 코워킹 스페이스이다.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나이와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입주비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달에 10만원으로 책정했다.

디자인 공장은 총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지상 3층은 사무공간 및 회의실, 공유 공간이며, 지하 1층은 샘플과 시제품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작업 공간으로 꾸몄다. 디자인공장 입주자는 두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이 생각했던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 창업 생태계가 만나다

제2회 리노베이션 스쿨 in Jeju

제주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힘을 모은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표 협업 프로젝트! '리노베이션 스쿨 in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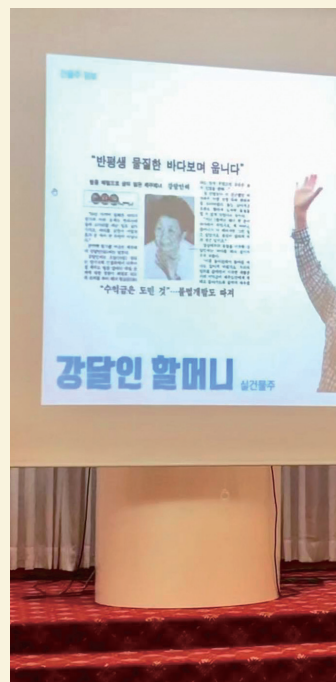
두 기관의 협업 프로젝트를 위해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도시재생스타트업 TF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기획 회의를 진행했다. 사업 대상지 조사부터 선정, 지역주민 대상 사전 교육, 리노베이션 스쿨 운영, 후속 사업지원에 대한 논의까지 두 기관이 함께 협의한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부성현센터장, 이하 재생센터)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전정환센터장, 이하 혁신센터)는 제주 원도심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제주시 용담 1동, 삼도 2동 일원에서 '제2회 리노베이션 스쿨 in Jeju'를 운영했다.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비즈니스를 발명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건축, 부동산, 디자인, 예술기획, 자금조달, 브랜딩 등의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가진 24명의 참여자가 4팀(유닛)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6월 27일 오후 4시부터 서문공설시장 상인회 3층 다목적실에서 개교식과 함께 콘텐츠를 제주상회 고선영대표의 오프닝 액트를 진행했다. 이어 28일~29일에는 에리어리서치(대상지 현장조사), 라이브액트(국내외 전문가 사례 발표)와 유닛워크(팀별 워크숍)가 진행되었다.

유닛별로 대상 건물을 방문하여 입지, 공간의 특성을 살피고, 건물주와 소통하며 리노베이션 기획을 위해 지역정보를 조사하는 시간이다. 특히 건물주와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건물의 특성을 상세히 파악했고, 건물이 유휴공간으로 남겨 된 실질적인 원인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건물주가 희망하는 리노베이션 방향을 경청한다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다.

라이브액트는 리노베이션 경험이 풍부한 일본인 및 한국인 유닛 마스터가 본인의 사례를 참가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으로 컬처네트워크 윤현석대표, 전통시장도슨트 이희준디렉터, 도레도레 김경하대표, 섬이다 김중현대표와 하기소스튜디오 미야자키미쓰히로대표가 리노베이션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독려했다.





유닛 구성원은 공간과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토론을 거듭하며 적합한 사업 모델을 정리해 나갔다. 최종 프레젠테이션 전까지는 유닛워크와 라이브 액트, 그리고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쇼트 프레젠테이션이 교차 진행되어 아이디어를 거듭 수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유닛 마스터들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개발이 리노베이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하며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30일에는 팀별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는 최종발표회가 열렸다. 프로그램 전체를 마무리하는 최종 프레젠테이션으로 유닛별 최종 리노베이션 기획안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현장에는 대상 공간 건물주가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혁신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및 건물주, 공무원, 벤처투자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리노베이션 사업 아이টে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역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다.

- * 유닛A 강달인의 앞바다
- * 유닛B 무근성 타임스퀘어
- * 유닛C 금화탕 프로젝트
- * 유닛D 서문의 하루

재생센터와 혁신센터는 '리노베이션 스쿨 in Jeju'를 통해 기획된 유닛별 프로젝트를 관계 기관의 협력과 참가자, 지역

주민의 주도 아래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면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리노베이션 스쿨

한국보다 앞서 유사한 도시 문제를 겪어온 일본의 리노베이션이란 낙후 지역의 유휴공간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지역 재생에 힘을 보태는 방법론을 의미한다.

현재, 제주시 원도심은 다양한 도시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축적해온 역사문화적 자산을 지닌 잠재력도 풍부한 곳이다.

리노베이션은 지역 내에 이미 존재하는 요소를 새롭게 활용하여 지역을 바꿔나가는 작업이다. 공공 주도로 지역 재생을 전개해왔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지역 재생을 추진하고 공공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민간 플레이어들은 실제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유휴부동산을 대상으로 잠재적인 지역자원을 조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사업을 전개한다.

리노베이션 스쿨은 이러한 새로운 지역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교육과정이다.

기억의 돌담을 직접 쌓다

2019 원도심 전통건축문화체험교육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지난 7월,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2019 원도심 전통건축문화체험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제주 건축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주책방(구 고씨주택)의 울담과 마당 공간을 직접 꾸며보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무더운 날씨 탓에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지만 매회 10여 명의 참가자의 열정과 책임감으로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매주 무뎠고 힘든 교육이었지만, 참가자들은 교육에 만족해했다. 교육을 통해 배운 기술로 본인 집을 직접 손본다거나, 매장 인테리어를 전통방식으로 직접 진행하고자 하는 배움의 욕구들이 있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제주책방의 울담과 마당은 새롭게 태어났다. 기존에 있던 울담의 안전 문제와 마당의 적막함이 전통건축문화를 바탕으로 한 참가자들의 손길로 새로운 도심 속 보금자리가 되었다. 주민들의 손으로 쌓아 올려진 순간들을 다시 돌아본다.



1 1강 이론교육 (2019.07.05.)

실질적인 체험에 앞서 이론교육이 진행되었다. '제주 건축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론교육(제주국제대학교 양상호 교수)이 진행되었는데, 3시간이 넘는 강의 중에도 15명의 참가자들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교육에 임했다.



2 2강 이론교육 및 답사 (2019.07.13.)

첫 번째 실습교육은 우천으로 인해, 울담쌓기 이론교육으로 변경하여 진행했다. 돌빛나예술학교 조환진 대표가 본인의 논문 및 경험을 가지고 울담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교육했다. 울담을 쌓을 때 필요한 도구에서부터 돌을 드는 법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다. 오후에는 비가 그쳐, 북촌 돌하르방공원 답사를 진행했다. 아쉽게도 실습은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다.



3 3강 마당 조경 실습 (2019.07.27.)
 무더위가 절정이던 7월 말, 마당 조경작업 및 돌담 기초석 쌓기 실습이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실습이다 보니, 모두 작업복을 입고 교육에 임했다. 자연풍경 강복천대표의 가이드에 따라 마당에 경계석을 깔고 그 위에 잔디를 식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편으로는 기존에 불안정하게 쌓여있던 돌담들을 해체하고 새롭게 기초석을 쌓는 작업을 진행했다. 무더위와 갑작스런 폭우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작업을 이어나갔다.



4 4강 울담쌓기 실습 (2019.08.03.)
 무더위가 여전했다. 지난 주 작업했던 마당의 잔디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심은 잔디에 물을 주려 평일에도 교육과 관계없이 잔디를 관리하기도 했다. 지난 주에 배운 '기초석 쌓기'를 바탕으로 울담쌓기 작업을 진행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돌담 하나하나 쌓다 보니 어느새 끝이 보였다. 완성된 마당과 울담을 둘러보니 교육전과 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직접 만든 공간이라 그런지 애정이 더욱 생겨났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공공건축 전문가 교육과정 45명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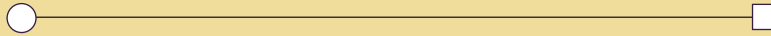
도시재생 뉴딜 공공건축가 교육과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부성현)는 7월 30일(화), N제주지역 본부 3층 강당에서 '2019 도시재생 뉴딜 공공건축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전체 13강(24시간) 교육과정 중 80%이상 수강한 45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향후 추진되는 공공건축가 제도와 연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공건축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의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건축 교육을 마련했으며 교육에서는 ▲도시재생과 건축 ▲공적 부동산과 민관협력 ▲공동체 주거와 생활형 SOC ▲제주 도시재생 뉴딜과 공공건축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이론 강의 및 팀별 워크숍을 통해 제주형 도시재생 공공건축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



도시재생 일반지역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

오래된 미래 모관, 옛 것을 살려 미래를 일구다
 사업유형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사업기간 2016~2020(5년)
 사업면적 약 929,095㎡
 총사업비 181.92억원(국비 90.96억원, 지방비 90.9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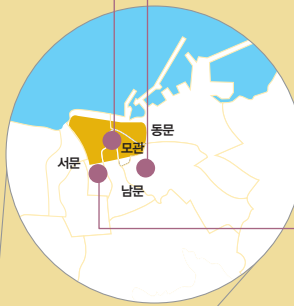
원도심 활성화 계획
 “옛 것을 살려 미래를 일구다”라는 모토하에
 제주시 원도심내의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재생사업 진행
4대 목표 역사경관도시, 문화예술도시, 주민친화도시, 사회경제도시
주요사업 관덕정 주변 활성화사업, 도심올레 이야기길 사업,
 도시재생 상생마당 구축, 보행 가로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창업 및 성장 자원인프라 구축 등
 7개 사업분야 15개 세부사업 진행.

뉴딜 제주시 신산머루(일도2동 일대)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사업유형 주거재생형(우리동네살리기)
 사업기간 2018~2020(3년)
 사업면적 45,616㎡
 총사업비 83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33억원)

뉴딜 제주시 남성마을(삼도2동 일대)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남성마을 이야기
 사업유형 주거재생형(주거지원형)
 사업기간 2019~2022(4년)
 사업면적 80,369.1㎡
 총사업비 141.70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66.7억원)



- 활성화 지역 선정
- 제외지역
-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뉴딜 서귀포시 대정읍(하모리 일대)

캔(CAN) 팩토리라 다시 사는 모슬포
 사업유형 일반근린형(근린재생형)
 사업기간 2019~2022(4년)
 사업면적 149,894㎡
 총사업비 142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67억원)

뉴딜 서귀포시 월평동(월평동 일대)

흔디 손심영! 지켜진 월평마을 만들기
 사업유형 주거재생형(주거지원형)
 사업기간 2018~2021(4년)
 사업면적 111,528㎡
 총사업비 134.51억원(국비 77.63억원, 지방비 56.88억원)



* 2019.2. 기준